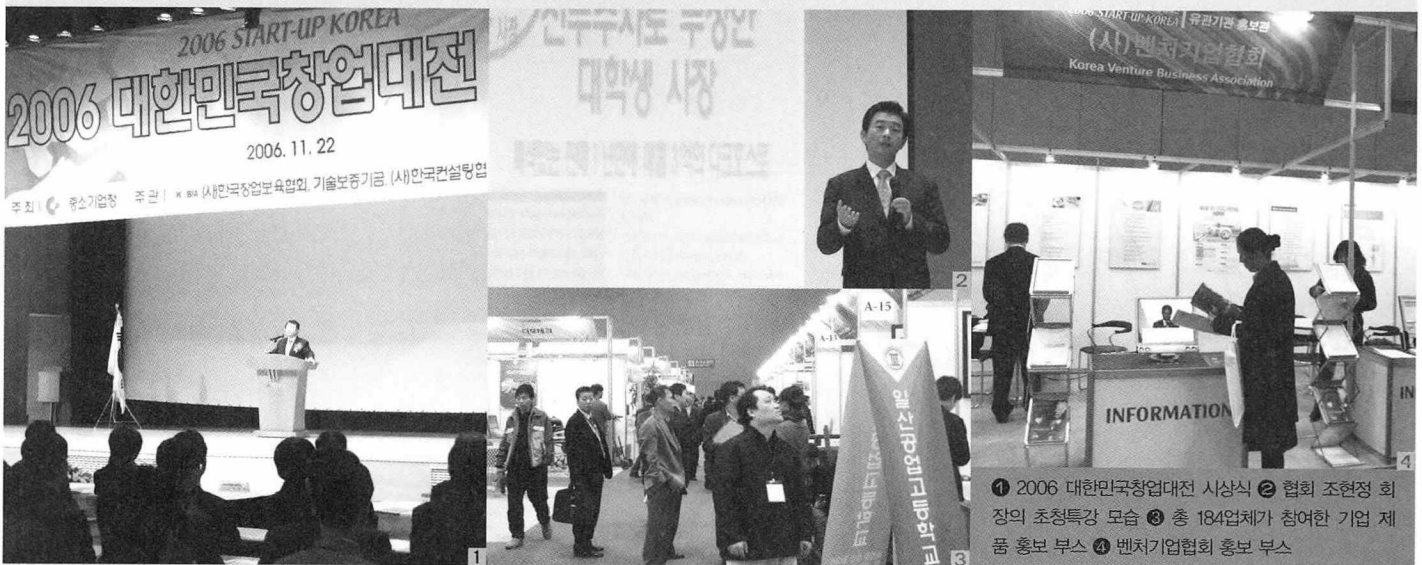


2006 대한민국창업대전 개최

- 업력 5년 이하 184업체 홍보관 개설
- 카이로제닉스 대통령상 영예



① 2006 대한민국창업대전 시상식 ② 협회 조현정 회장의 초청특강 모습 ③ 총 184업체가 참여한 기업 제품 홍보 부스 ④ 벤처기업협회 홍보 부스

협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열린 2006 대한민국창업대전에 참가, 3개 부스를 설치하고 협회주요사업 홍보 및 회원 가입 프로모션을 펼쳤다. 또한 협회가 운영하는 서울벤처인큐베이터의 부스를 마련, 우수한 창업단계 벤처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로디지털단지 마리오타워로 새로이 확장 이전하는 보육센터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협회는 최근 주력하고 있는 회원사 서비스 ▲벤처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재무관리 프로그램 : RWS ▲교육서비스사업 : 벤처아카데미 ▲벤처기업제품 장터 : V-Market ▲전 세계 하이테크 한민족벤처네트워크 기반의 해외마케팅 지원 : INKE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번 2006 창업대전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보증기금, 한국건설탕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4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지난해까지 별도로 진행되어 온 '대한민국창업대전'과 '창업보육 한마당' 행사를 통합, 창업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테마별로 구성된 전시장은 우수창업기업관, 정보통신멀티관, 바이오생명관 등으로 나누져 창업 5년 미만 총 184업체가 활발한 제품 홍보를 실시, 많은 예비 창업자 및 일반 관람객들의 방문으로 성황을 이뤘다. 또한 협회를 비롯한 창업보육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창업지원기관들의 상담도 이루어졌다. 22일 오전 진행된 창업대전 시상식에서는 암세포증식 효소 억제제를 개발한 카이로제닉스(대표 김경수)가 창업기업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총 35개 기업, 창업지원기관 14곳, 창업지원 유공자 27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한편 협회 조현정 회장은 개막일인 22일 오후 2시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창업보육협회 주관으로 '1등보다 1호를 선호한 창조경영'을 주제로 초청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서 조회장은 "기존 성공한 사업을 따라가는 미투(Me too)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일찍 분야를 정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더불어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업인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진심어린 당부를 전했다. 이날 1시간 30분 남짓 진행된 초청 강연에는 200여 명 가까운 예비 창업자들이 모여 창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